

도민·관광객 환경보전기여금 찬반 엇갈려

제주 방문객 대상 설문 결과 찬성 21% 그쳐 입장 유보층 42%... 공감대 확산 최우선 과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에 대해 제주도민과 관광객 별로 찬반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 사이 도민·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 550명과 제주도민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주도는 당시 설문 조사가 내부 참고용이라며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라일보가

파악한 결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한다는 관광객은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반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반대한 관광객은 37%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16%포인트 많았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반대한 이유로는 대다수가 제주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지는 점을 꼽았다.

도민들은 과반수 이상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했다. 대다수 도민은 관광객 증가로 제주가 부담하는 환경 비용이 커졌으며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제주도가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숙박의 경우 1인당 1500

원, 렌터카 이용시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시 요금의 5%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때부터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려 했지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관광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도입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2020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재개됐으며, 이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삼고 그해 12월 같은당 위성곤 의원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10년을 끈 찬반 논의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이상민기자

차고지 증명제 제도 개선 중고차 차고지 사전 신청 등

올해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완화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차고지 사전 신청제도 대상이 확대됐다. 그간 차고지 신청제도는 신차에만 적용됐으나 중고차를 이전해 등록할 때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 외에서 운행하는 제주도민의 차량의 경우 최대 2년간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한다.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은 저소득층의 소형 화물차 1대로 한정했다.

부설주차장 관련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속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조례 상 생활속박시설과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은 다르다. 이에 용도 변경이 용이하도록 생활속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성음민속마을 집줄농기 6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음민속마을 공한지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초기에 새로 이를 집줄농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집중

제주시, 올해 복지·위생분야 6971억원 투입

제주시는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공동체 조성 등을 위해 올해 6971억원의 예산을 확보,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1조8723억원)의 37.2%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345억원(5.2%) 늘어났다.

올해 주요 추진 분야로는 탄탄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62억원을 투입, 코로나19 등 갑작스런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와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또한 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위험군 장년층 가구 건강음료 지원 사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1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대상

인원을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통한 고령 친화적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 262억원을 투입, 모두 6900명에게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하게 된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76억원을 투입, 모두 1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 사업제 발굴 등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공항우회도로 대규모 장례식장 논란

도두동 주민들 철회 요구

제주시 도두동 공항우회도로 인근에 대규모 장례식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공항우회도로에 추진되는 대규모 민간 장례식장 건축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장례식장은 도두2동 9442㎡ 부지에 연면적 5894㎡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통과

상하수도 등 관련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고 사업자는 190여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계획을 보완하는 등 허가가 났다. 시는 사업 부지는 자연녹지로 장례식장 건축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장례식장 건설사업 추진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주민 생활환경 악화와 교통혼잡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20년부터 장례식장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윤형기자

서귀포시, 어선 자동화·노후기관 대체 지원

서귀포시는 올해 8억4800만원을 투입해 연구해어선 200척을 대상으로 어선자동화시설과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을 전개, 이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4억2800만원을 들여 어선자동조타기를 비롯해 자동투양묘기, 자동양망(승)기, 채낚기양승

기, 전자장비 등 총 8개 기종의 장비에 대한 구입금액의 60%를 어업인에게 보조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기관대체 지원사업에는 4억2000만원을 투입해 연식이 오래된 어선기관을 고효율의 신규엔진으로 교체하기를 원하는 어업인에게 최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굴피' 산업 육성 기대반 우려반

도, 종합계획수립 착수... 유기농 대량 생산 '관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굴피'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굴피(갑골 껍질)는 한국과 중국에서 한약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어 산업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8월 버려지는 갑골껍질을 활용해 산업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굴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공표됨에 따라 올해 제주 굴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굴피는 한약재로 이용되고 있다. 중국에서 한약재에 대해 최초로 서술한 책 '신농본초경'에는 한약재로 쓰이는 365종이 수록돼 있는데 여기에 굴피가 포함돼 있다. '동의보감'에는 갑골 껍질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굴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배단계에서부터 유기농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비상품 갑골 껍질을 이용하는 사업화를 구상하고 있다. 굴피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관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식품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굴피를 이용해 음료를 제조했던 도내 한 식품전문가는 "일반 재배 갑골 껍질에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돼 약재 이용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유기농으로 재배한 굴에서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이용해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수량이 적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농가작업인부 지원 (과수원 발작업)

NAVER DU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